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호 【부제 제25522호】 주제 106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동지를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이 명예전국지도자로 모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이 명예전국지도자로 높이 모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명예전국지도자칭호증서를 전달하는 의식이 7일 아부자에서 진행되었다. 의식에는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인민진보당의 인사들과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이슬작품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의식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명예전국지도자칭호증서를 관할 내지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인 정영철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전국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은각하를 명예전국지도자로 높이 모시것은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지도부성원들과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의 표시이다. 김정은은각하께서는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존모를 받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혁명과 건설에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발전시키시었다.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이 바탕으로 강화되고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것만 보아도 그이께서 비상한 정치실력을 지니신분이시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김정은은각하를 명예전국지도자로 높이 모신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은 앞으로 조선로동당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은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어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동지를

벨라루스단체와 로씨야인사가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주에 즈음하여 그이께 벨라루스태권도협회와 로씨야 로스브루메르비시프사그룹 유한책임회사 총사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벨라루스주제 우리 나라 령시대리대사와 로씨야에서 사업하는 태권도협회와 로씨야 로스브루메르비시프사그룹 유한책임회사 총사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동지의 특사

니카라과공화국 대통령취임식에 참가

【마나과 1월 10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특사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10일 수도 마나과의 혁명광장에서 진행된 니카라과공화국 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 대표단, 대표들, 이 나라 주제 외교

대표들과 니카라과 정부, 민족회의, 각계의 인사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취임식에서는 다니엘 오르페가 씨베드라 니카라과공화국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였다. 다니엘 오르페가 씨베드라대통령의 취임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그는 미국의 침략과 내정간섭행위를 물리치며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 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룡해동지는 다니엘 오르페가 씨베드라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고 니카라과인민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이날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에서 차린 연회에 초대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동지를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7일 관할 내지 전국위원장인 정영철 나이제리아

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올해의 전면총돌격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자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의 손으로 질 좋고 맛있는 가방을 더 많이 생산하자

평양가방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가방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12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초급당원인 장정명철의 보고에 이어 지체인 리은정, 직장장 심명성, 노동자 협의회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대동공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가방을 인겨주시기 위하여 평양가방공장건설을 직접 맡기하시고 행정안도 지도해주시었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뜻깊은 올해의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볼소 공장을 찾오시어 우리의 원로와 재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인겨주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와 본것 같은 오해를 잊지 못할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그들은 직장을 토론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미에 인민을 위한 열사부부의 자욕을 새기시어 사랑의 기념사까지 써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응징으로 보답해나갈 것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과 인민들이 좋아하는 인기상품으로 만들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용성을 꾀고늘어 모든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본보기로 준비시키며 실비들을 적극 애호관리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뜻깊은 올해의 첫 현지지도로 공장을 찾아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보배광장으로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대대한은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열사부부정신으로 가방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원산군민발전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모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역정쟁의 창조물로 통용되던 원산군민발전소에서 전력중심투쟁의 불길기 새치게 떠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담같이 떨쳐나선 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제고하여 세에 불어와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 주고있다. 지난해 12월 새로 입미시킨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신 원산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강건도정신의 창조지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인겨주시고 발전소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과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일

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의 일양원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신식정치사업을 제고하여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운전봉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이며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비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높이고있다.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여러가지 가지치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이고 코때간 설비순회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 발전설비들의 만가공을 보장함으로써 새해 첫 전투시작부터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신현일

두줄기 궤도에 올려퍼지는 결사관철의 기적소리

철도운수부문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중요물동수송량 장성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초부터 발전소의 급속, 화학공장들에 대한 물동수송에서 자랑찬 위업을 창조해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0일 현재 철도성적으로 일 화물수송량이 평균 102.9%로 넘쳐 수행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발전소물동수송량은 1.1배, 금속공업물동수송량은 2.5배, 화학공업물동수송량은 1.3배 이상 장성하였다. 철도운수부문에 기록되고 있는 높은 수송실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기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수송전투행렬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와 경험을 회상회의를 통하여 제에 일러주는것과 함께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꾀고있고있다. 각 철도국과 철도본국, 기관차와 객차의 일군들과 수송전투사들이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업물동수송을 위한 단과 및 따로 없는 전투를 파카히 밀려나가고있다. 북상피해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황해철원연합기업소와 남포철원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단위의 물동수송에서 큰 몫을 맡은 평양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투사들이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증송투쟁을 줄기있게 밀려나가고있다. 중요한, 대를 비롯한 아예단위들에 내려간 일선들은 현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는것과 함께 중요물동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을 적극 찾아내어 실현에 구현해나갈데로 하고있다. 특히 집시시각을 극력 줄이고 불동을 심은 열차들을 목적지들로 신속히 떠나보내는데 보탬 되고있다. 북상피해발전연합기업소와 수송전투사들이 화력발전소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들은 수리기술을 전문화하여 수리수도와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기관차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합리적인 운전조작법을 받아들여 매일 높은 수송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시명량, 신성선, 사리원기관차의 일군들과 수송전투사들은 기관차의 실용률이 시 골 중요물동수송실적이러는것을 명심하고 기관차운영을 제고하고 지경지수와 수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평양조차장객차대과대, 신성선, 북상피해발전소의 일군들과 수송전투사들은 화력보장을 위한 좋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려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동발나무생산성과 계속 확대

함경북도림업관리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필독한 가슴마다에 반이안은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새해 첫시작부터 동발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기세높게 내달리고있다. 관리국당위원회에서는 생산적업무를 일으키는데서 중심과리를 정화회 조직하고 정치사업자료들을 품어들어 준비하여 들끓는 전투현장을 내리거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드세게 들이대고 있다. 이들은 산관마다에 붉은기가 힘차게 나뭇기둥을 하는 한편 올해 우리가 들고나갈 전투적주요를 비롯한 대중을 총동원적으로 부르는 힘있는 포어를, 속보들을 기동적으로 전개하여 새해전투의 분위기를 비상히 고조시키고 있다. 사업소들을 담당하고 내려간 관리국일군들이 로동자들과 어울려 일도 함께 하면서 올해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의 논의를 하고있다. 올해의 대진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도록 고추추진하고있다.

관리국감무부에서는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일망겨 수행하는데 힘을 넣고 작전과 지휘를 맡아들이고 있다. 일군들은 기계톱과 쇠바늘, 차부속품을 비롯한 설비기공품을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제에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또한 산관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불러 동발나무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자랑스런 승전의 불길은 온성경목생산사업소에서 새치게 떠오르고있다.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정신력을 높이 발휘할 때 못내일 일이 없다는 각오를 태우고 힘찬 생산투쟁을 벌려 10일 현재 월 동발나무생산계획을 140%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성경목생산사업소의 로동자들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미를 가지는 올해의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중심드림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운반거리가 먼 조건에서 자동차들에 대한 정비를 집하여 한주일만에 월 동발나무생산계획을 90% 수행하고 기세높게 내달리고있다. 회령경목생산사업소에서는 일군들이 계획수행에서 제일 큰 몫을 맡고있는 정제사업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동발나무생산성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밖에도 여러 경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수송전투사들의 단거리혁명정신으로 힘차게 투쟁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관리국일군들과 각 사업소의 일군들, 념원들은 가정에서 준비한 많은 후방물자들을 안고 산관에 올라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들이는 전투에 진입한 함경북도림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탄광들에 보낸 동발나무생산실적은 매일 높아지고 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꾀고있고있다.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김흥문 특음

정론

조선은 또 다시 질풍처럼 달린다

올해는 첫걸음부터 기쁨으로 설레이니, 어제는 가랑쭉포, 오늘은 이불복포... 사람마다 새해의 인사말처럼 즐겁게 주고받는 희망의 소식들이다. 지난해에는 민들레학습장, 보건실소, <동학산>복합주... 그렇게 우리의 세부가 즐비해 흔하지는 새해의 희망이 또 다른 우리의 것이 연례연방 태어난다. 마음속에 그려보는 희망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행복의 풍경이다. 물이만 보이도 겹으로 마음이 흥겨워지고 가슴재이 것 어드는 개척의 메아리, 조선의 자강력대권군의 세속비와도 같이, 재질이든 흥해가 는 인민이 리지는 환희의 서풍과도 같이 심장을 울리는 경사이다.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의 첫 편지지도도 다녀가신 평양가방공장의 구내를 걸고있다. 맑고그로 화려한 가방상채, 가방봉인이다. 사르록, 사르록...<보석>이라는 이름 우 단 현대적인 제품기계의 울림이 들려, 우리 힘으로 만든 레이저대전기과 자동연단기, 벨트포베어 등을 거쳐 다종화, 다양화된 갖가지 질 좋은 가방들이 줄줄이 흘러 나오는 호화한 풍경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설비의 국산화비중 95% 이상, 이 수자도 놀랍지만 가방선과 합성자크, 자크, 페르 등 원료와 지체물도 집중적영양양지공장과 평정합성자크공장, 난경대학병사저지기법공정물비듯한 우리의 공장들에서 만들어져서 저도 모르게 자강력 만세의 뭉치이 리지나온다.

그래서이리러,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편지지도도 그날 이 공장에 오니 자를 떠 쓰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땀에 흥겨워 하고는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즐거움의 웃음을 지어준다.

키가높이든 금시라도 보시오, 우리의것이 더 멋있소 하시며 <소년장수>, <영미한 지구> 등 아이들과 친숙한 디자인을 새겨진 가방일에서 아이들이 평평히 좋아 하겠다고 거들 외우시던 위대한 어머니의 웃음이 들려올것만 같았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기적이라고, 이런 행복의 기적이 편이 일어날까 하지는 것이 당의 지도라고 힘주시 말씀하시며 우리가 만든 멋있는 가방을 보고 학교로 오가듯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을 기쁨속에 그려 보시었으니 질세위로의 투명한 행복의 세계를 무슨 말로 다 노래할 수 있우려, 우리가 만든 멋있는가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간다!

참으로 작고도 큰 이야기,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겨우쳐낼 비껴안은 우리 시대의 희망찬 설렘이다.

이렇게 자기의것을 차르차루 쌓아가고면 반드시 울래는 인민생활상에서 번이 나는 해로 장식할수 있다는 심상이 그물벽이 가슴에 차오른다.

아마도 새해의 가랑쭉포소식에 접한 이 나라 어머니들의 눈곱도 뜨거울것 같아들리라. 아침마다 아들딸들을 내려서서 존 고 복을 입혀, 우리가 만든 책가방이 민들레학습장을 넘어 학교길로 떠밀게 되었으니 그 기쁨 얼마나 크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애국심도 더욱 크게 자랐으니 진정 우리의 가방은 자강력으로 흥하고 자강력으로 승리해가는 가슴 벅찬 오늘이 시대가 응축된 소중한 재보이다.

정말 얼마나 밝은가, 우리의 새해는!

얼마나 멋있는가, 우리의 첫걸음은! 보상이나 설계만이 아니라 계승으로 무르익힌 행복의 열매를 따들이는것으로, 첫시작부터 자강력승리의 소식들로 가슴 울려퍼지는 우리의 2017년이다. 가랑쭉포에 잇달아 집중적영양제사공장에서 여러가지 질 좋은 이불들이 쏟아져나오는 오호호의 정사로운 환희, 흰털이 아름다 운 낭년의 비단편과 우리의 땀수승으로 만든 가방고도 부드러운 이불과 더불어 인민의 기쁨이 더 한껏 불쳐날 그날이 멀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편지지도의 그날 쓸어보고 또 쓸어보신 거울이불, 어른이불, 봄가을이불만 자랑이던가, 우리 당이 지어준 최상급의 <동문자호복>도 평범한 조사공제자들을 어서 오라 부른다.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세포지구어의 테 초원, 동해의 포구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이해를 장식할 새리새로운 기적의 소식 들은 또 얼마나 많으랴.

이는 보통의 출발이 아니라, 혁명의 전성기를 대변영기에도 이어가는 힘있는 출발, 비약우에 또 비약이다.

한걸음에 천리라고 우리는 오늘의 첫걸 음에서 행복의 기적으로 멀리 뚫어놓은 대변 영의 2017년을 내다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변영기에도 이어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결집이며 투쟁기풍입니다.>
2017년!

참으로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더 큰 승리를 이로세게 펼쳐 나가는 해이다. 얼마나 많은 사변들이 기다리고있는가, 얼마나 역사적인 전환기에 2017년이 놓여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연명하시 었듯이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형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이다.

관건은 모든 문제해결에서 핵심적교리 라는 말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형의 전명을 열어가는 올해의 투쟁을 어떻게 벌러는가에 따라 우리 당이 설계한 경제장국건설, 문명장국건설을 비롯한 위대한 목표들을 달성하는가 못하는가가 좌우된다.

그야말로 오늘날이 아닌 민족민대의 미래가 실린 핵심적이고도 결정적인 시각이 다.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고 그 무슨 <단독 제제>, <최대의 압박>으로 하며 떠밀려는 령주들과의 대결전에서도 굳기치면 영원한 승리자요, 그렇지 않으면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

남들같이 열혈한 주지않고도 열혈한 시련속에서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더욱 눈부신 설계도를 펼치었으니 승리를 확신 하는 불패의 그 담력과 기상에 천만의 신장이 세차례 격동하고있다.

지난해의 승리도 위대하다. 만리마시며 뭉치 놓는 <2016년 10대 조선총 서>의 분우리를 꺾어넘어 더욱 황화강인대 변영기를 펼쳐놓아야 하는 올해의 투쟁 이야말로 주체혁명사에서 또 하나의 기적 의 깃발무로 이루어 질것이다.

믿음을 더한 승리만 있다. 이제 넓고 깊어지 할 협산현명은 중증

질병이전난 과연 무엇이요 하여 우리 군대 와 인민은 그렇듯 사기충진해나아가는것이 어찌 남이 갈수록 내지는 보복은 그러도 활력에 넘친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거대한 총력, 위대한 자강력이 있기에문 이다.

그 어떤 력후난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무 척의 성세인 입심단결에 자강력만 있 으면 우리는 필승불패이다. 입심단결에 지역 자강을 더하면 그것이 온 대변영기이고 최후승리라는것이 2017년의 새해전군 길에 펼쳐나선 천만군인의 확신이다.

혁명은 동력이 있어야 승승장구한다. 무진장한 동력이 없는 혁명은 불을 뿌라 가 식어버리는 화산과도 같이 영원한 승리를 비할수 없는 것이다.

세계를 둘러보면 민족현명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모색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또 제나라의 발전을 원천을 두고 자부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만약 그것이 가장 예적이고 위험한 힘이라 면, 그것이 마를을 모르는 바다와도 같은 무한한 원천이라면 그런 동력을 가진 나라는 가장 미래가 양양하고 언제나 승리를 믿을수 있는 기적의 나라일것이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동력이 있다. 자강력! 세상에 이처럼 믿을직하고 위대한 힘이 과연 있는가.

자강력자강야말로 진짜 검은보화이고 역대의 재물이며 그 무엇보다도 비할수 없는 무진장한 창조물이다.

이 강위대한 투쟁을 역사상 처음 으로 우리 인민에게 인겨주시고 억척불 오고 버려두실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혁명 과 건설이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힘 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자부심, 그 어떤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들지 않는 자력의 넉을 주체의 데오에 심어주어야 할 인민의 열정적투쟁이 나갔고 전회의 군사 리혁명정신이 창조되었으며 고난의 언덕을 넘어 우리 집, 우리 지대로 영광의 만리길 을 여는 세기적기적으로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이 퍼피오로 지지고 다져온 동력, 투쟁이 승을 창조하며 사회주의를 일 떠세우고 단속으로 미제와 반공세력들을 추시러온 과업의 길에 쏟아낸 우리의 불패의 동력, 이것만으로도 실사 지구가 깨어져나간다 해도 추호도 흔들림없고 기적의 불사조가 되어 세계앞에 당당히 설수 있다.

이는 우리만이 아닌 세계가 찬탄하는 조선의 재보이고 영원한 승리의 원천이다. <사회주의조선이든> 자동차는 비록 크 기는 작아도 단 한대의 교표사교를 낸적이 없다. 다른 자동차들은 자본주의대중에 강제징집당하며 전부복 때에도 자동차는 자기 자신의 탁월한 운전능력으로 난관을 뚫고나갔다.

혁명의 동력문제가 원천능력해 해결된 나라는 많았지만 끝까지 나아가는 법이다. 밑거름의 눈앞에 어머니들, 우리의 기방 층에, 이불복포소식과도 같이 새해에 즐겨 치는 이이질 행복의 기적들-평양거리공공 소식과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흥하는 소식으로 펴 똘수어나와 화랑용의 장갈과 잇 만은 이야기, 인민의 행복을 더 아를듯한 불피우 최한 새 공정들의 건설, 그렇게 새리새로운 기적들이 2017년의 열두달

을 가득 채우게 될것이니 참으로 가슴뛰쳐 오른다.

세상에 이렇게 승리를 눈앞에 보며 새해 의 행군길에 나선 나라와 인민이 과연 어디에 있을것인가.

천만군인이여, 인양원 이 기세, 이 열정으로 당이 제시 한 5개년전략과지를 향해, 휘황찬란한 대변영기를 위해 진원총력전에 과감히 떨쳐나서라.

미래를 탁관하는 우리의 총진군대오의 전투에 능부인 우리의 태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믿어주고 한마음을 쏟으시라. 우리의 승리가 있고 강대한 조선의 힘이시다. 잊을수 없는 2017년의 신년사를 하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인민들 절절 하게 미늘으신 그 말씀.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을 쏟으셨던 열 열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군심으로 마음이 무기워 진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 라지지 못하는 안라싸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진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갈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 그 해신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워온다. 인민의 행복 하나도 한몫도 초보처럼 땅그리 불태우기하며 조강조강행군과 바닷 물이 어오시었던건만 그이는 어이하어 그러도 단속을 모르는것인가.

인민을 위한 그 길에 하늘길, 땅길도 모자라 뽕방사한 바다길에도 주저없이 오르는 우리 원수님, 그 이 해까지 신 장행군길에 고무단정을 다시 고 찾아간 최대일철지역의 심초소도 있었으니 그날의 위험천만한 황해길을 막아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을 인민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핏물로 남아있다. 동해보루를 뚫으셨던 우리 원수님의 외무작업에 맺혔던 고드름도 놓치지 않은 열음으로 가슴에 아리게 맺혔는 데 오리라 안라싸움과 자책속에 제시였 다니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시작은 이이고 그들은 과연 어리란 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의 아침에 열심히 명명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제 인민이 앞날을 탁관하며 <세상에 무 렷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들의 순간이 아닌 오늘이 현실이 되도 록 하기 위하여 원전분투할것이며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칙하 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창원 총부,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것이다!

그 정점으로 새해의 문을 여시고 열미면 에는 천만군사를 뒤로 미루시고 동경같이 푸 러진 집중적영양제사공장 공장건설을 찾아주시었다. 받아안은 그 사당이 하루도 끊단 같아 오늘도 눈물속에 떠지는 공장 지체인과 조사공제자들의 목소리는 그 얼마나 만사편을 울려냈것나.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띄운원 과학자 들입니다, 언젠가 대한 불이고 조국을 지는 별사편들입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 을 다그치던 수 함길도독 잠 못 이루시며 우리 공장 로동자합을 잘 지어주자고 간곡히 이르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우린 모두 울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해 이렇게 천만군을 들어드릴까요...>

정영 그날처럼 깊은 밤 인민을 요람속에 재우고 사랑의 설계도를 펼치시기를 그 렸다, 인민이 알지 못하는 헌신의 그 강행군의 낮과 밤을 따라 이 땅에는 행복의 세월이 펼쳐지거늘 이처럼 위대한 태양의 몸여 운명의 피흘을 이룬 이 나라 인민이 어찌 경애하는 원수님을 천리라도 만리라도 떠나서 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반복이 오고 대변영기가 열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이다, 바로 이것이 2017년과 더불어 더욱 불타오르는 조선의 민심이다.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뜻도 의지도 같이하는 총성의 인간이란 절코 다 든 사람이 아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도그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새해의 전우적주요에 심장의 타동을 잊으며 사는 시련, 자력자강을 제침화한 불굴의 투사들 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우리 당이 바라는 진책배에게자이다.

자력자강, 이는 사회주의장국건설에서 우리가 풀어야 하나의 역안과도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내내주시길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물들의 투쟁기풍과 일본 새를 누구나 따라배워야 한다.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도인민들이 만물을 이겨내며 창조정신을 창조하였다던 강원랑의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불라 는 총성과 전사관련의 기상,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문명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길에 강원도정신을 창조하였다.

강원도의 인민들이 자제의 힘으로 당 제 7차대회에 드리는 총성의 선물로 일미 세운 원산인민발전소 언저를 바라보지만 하여도 온 세계에 앞사나하려는 기상과 힘 이 느껴져 지질로 머리가 속어진다.

모든것이 부록하고 여러운 속에서도 강 령하게 일미시는 정신력의 무서운 분출이 었다. 동이 떠질듯 억수로 물이 쏟아져나오 면 돌길굴전성, 허리치는 돌속에 작은 기 를 불어넣고 압박을 뚫던 불굴의 군상을 잊으라. 석수가 차오르는 경우에도 도망쳐와 나무배까지 띄워 불타는 나르 고 전진하던 역적의 기상, 내인물까지 볼래대 를 붓고 떨쳐나서 인재를 쌓아나간 불사 령의 모습!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불빛을 지키고 빛내여가는 나날에 강원도가 누 구나 부러워하는 <불강원도>, <자강원도 >가 되었으니 이것이 단순히 난관극복정 신의 대명사만이인가. 이들은 불굴의 정 신력으로 과학기술의 힘 배대로 분출시

5개년전략과지를 향해 총력해나아가는 천만군인이여!

그대들이 진정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자력자강의 선구자가 되거니와 강원도정신 의 창조자물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정신력 의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과학기술력을 승리의 보검으로 높이 불려라.

자력자강의 강자들의 두뇌에서 과학학구 의 신기술을 힘아 보지방 때 내 조국땅에 는 행복의 세부들이 끊임없이 축조되고 원차례장국의 매입은 하루빨리 일당겨지 게 될것이다.

일본군인이여! 주제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온몸에 새기고 뼈속깊이 체질화하라.

우리 원수님 새해의 첫하침 신년사에서 다시신 말씀은 그대로 이 나라의 모든 일 군들이 심장에 쏘아박아야 할 삶의 파로와 도 같다.

우리 원수님의 헌신의 보복에 말씀들을 맞추어나간다면,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군 심으로 잠 못 드시는 그렇듯 지극한 마음 에 바라신다면 그런 일군이 있는 곳에서는 인민들이 행복에 웃고 만사편되고 앞날꿈 게 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가방공장을 편지지도하시며 높이 평가하신 평양시장 위원회의 일꾼들의 모습을 볼수록 미뎌다. 이들에게는 인민을 위한 좋은일하기수립 이 있다. 그 수업을는 수도를이 잘 나오는 것을 수시로 알아보기 위해 장려높은 여러 고출아바트의 제일 높은 층 세대들의 전화 번호가 있는가 하면 시안의 여러곳을 맡아 닳도록 다니며 시금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을 반영한 내용도 피어차있다. 이것이 그대 로 인민들의 마음을 여는 통령중으로 되고 있어 주원들의 열혈한 웃음꽃이 피어있다.

이불패이 아니다. 제 1차 집담총공담담 원장대회장에서 돌아오는 길로 막장과 협 이 느껴져 지질로 머리가 속어진다.

우려 원수님께서 높이 내내주시길 우리 당의 총칙한 전사, 인민의 기쁨과 애유의 목소리를 다 거역하고 그들이 자그마한 불 천이라도 느긋다면 소수리치듯 감사자를 칭하고 있으나 벼를 부르시며 일하는 기술부류 의 투사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적적인 성과 들이 다대적으로, 번발적으로 이루어되가 려다.

참으로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력사적시 계에 우리가 살고있다.

1.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자! 강력한 정치군사진지는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똥는 심장마대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 은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더욱 굳건 히 해서 우리 조국을 입심단결의 정치 사상장국, 무척의 군사장국으로 끝없이 빛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 습니다.>

인민대중의 자부심을 응조하고 실현 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제국주의와의 현 에한 정치군사적대결을 통한하는 지혈 한 단계적구투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짓무시고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정치적 불패의 보루를 흔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강력한 정치군사진지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만년불식이다.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전진들은 사회주의 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명명하기 위한 올해의 전진투쟁주요는 전 민대중이 피똥는 심장을 당풍당위원회 의 트락에 이어놓고 승리에서 더 큰 승 리를 이룩해나가는 입심단결의 총공작 령이다. 뜻깊은 올해에도 수형경사승위 의 성세, 혼연일체의 심백을 높이 쌓고 입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전성기를 대변영기기로 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

질이 최고정회인 인민대중예민주 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당과 인민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적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공세를 단호히 짓부시며 나아갈 때 주체의 사회주의의 변태적인 입심단결 의 위력은 천천배로 강화될것이며 5개 년전략과지명령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 는 승리가 있을것이다.

불패의 군사정치적 사회주의 장국 건설을 위한 근본방이다.

자주적인 장국전진들은 인민대중의 지 향이고 달린다. 그러나 이것은 지질 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력사의 유구 적이나 병도의 황제성, 갑질된 권제적 도 군사정치적 약하던 부강민영의 필선 으로 필수 없다. 권력장악에 최대의 힘 을 넣어 군사정치만을 흔들지 아니하 는 여기에 조국수호, 조국연명의 확고 한 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신인민군장전 불변사들이 되는 울 래로 권력장악의 불비판을 세차게 외쳐 커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권력은 권력중의 제일국력이다. 아무 리 선행하고 정당하여도 자제의 장력한 뒤, 권력이 없으면 자들의 총령통제 되, 코르포서 언어는 커중한 력사학 는 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 이것은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총대 가 강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 권도 지킬수 있고 사회주의제도도 수호 할수 있으며 장성현명도 이룩할수 있다.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 해지는 현진정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수단시합과 작이한 공적수단들의

시합발사, 핵탄두발사시험에서의 성공 을 비롯하여 국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대대적으로, 번발적으로 이룩 되었고 인민대중이 무척적공의 정치사 령적면모와 군사기술준비를 더욱 완벽 하게 갖추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장국건설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감수 있는 위대한 군사적담보이다. 국방분 야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 에게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고무적힘을 인겨주고 제국주의자들과 반공세력들 을 추시러온 과업의 길에 쏟아넣었으며 공화국의 전직적지위를 비상히 높 이었다.

뜻깊은 올해에 권력강화의 불비판을 더욱 세차게 일으며 혁명의 군사정치적을 때방으로 강화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 과 핵무선현명공공의 드림같은 의지이 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장국화, 도적 강간공세를 힘있게 다그치고 강도높은 싸 운준비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적들 을 쫓아내 나가는 입당백의 만능사승군, 핵무선공화국이 커우미 공화국부대들 시 함양의 열심투쟁과 전회의 군사 리혁명정신으로 선공혁명의 명기장을 역적칼이 다칠 때 우리의 군사정치적 전책대로 강화되고 사회주의조선은 동방의 혁광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 을 더욱 높이 떨치게 될것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대중들, 인민들 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우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시 사회 주의의 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명 주 혁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새해행군길의 앞길에 우리의 청년전진들이 서있다.

이 땅의 청년전진들이 나가는데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을 깊이 새겨주실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었다.

<시대와 외세의존은 땅과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주제 104 (2015) 년 4월 핵무선영웅정년 선공내들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커중한 혁명의 철리를 천만의 심장마대에 새겨주시며 우리 청년들을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기워주시며 길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에 그들의 가슴은 후터했다.

정양소의 창고들로 들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식불망 고에 있는 황나물과 고사리를 불 것만한 산나물들을 청년들력대원들 이 말뚝을 채질하면서 평범이 채취한것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틀려대원들이 자제의 힘으로 모 든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자력 자강의 정신이 강하다고, 생활력 이 있다고 거듭 하하시었다.

핵무선은 힘을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키워주며 불멸의 자욱을 새기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기와 물고기, 남새와 과일도 부족한 갖가지 음식들을... 제힘으로 핵무선대에서 발전소를 일떠세우는 거대한 투쟁속에 생 활을 창조하고 훌륭히 푸러 나가는 청년들력대원들이 되건 하시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었다.

물자들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정양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 기와 알, 남새를 청년들력대에서 자체로 무린 축산기지를 비롯한 후방기지들을 생산보장하고있 다는데 대해서도 언니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늘 말하 지만 자력자강이 제일이라고 하는미고는 말씀을 하시었다.

자력자강이 제일이다! 길이 뜻이 담긴 그이의 말씀 에 일군들과 청년들력대지회 성원들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커중한 혁명의 철리를 천만의 심장마대에 새겨주시며 우리 청년들을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기워주시며 길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에 그들의 가슴은 후터했다.

정양소의 창고들로 들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식불망 고에 있는 황나물과 고사리를 불 것만한 산나물들을 청년들력대원들 이 말뚝을 채질하면서 평범이 채취한것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틀려대원들이 자제의 힘으로 모 든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자력 자강의 정신이 강하다고, 생활력 이 있다고 거듭 하하시었다.

핵무선은 힘을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키워주며 불멸의 자욱을 새기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양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불자들을 보장하는데서 물고기와 과일 이 제일 걸릴것이라고 하시며 정양 생들에게 풍성한 물고기와 과일을 자신께서 맡아 보장해주시겠다고 청년들력대원들을 지시했다.

청년들력대원들의 심장은 보 담의 열정으로 새겨져 들어나갔 었다. 그들은 핵무선영웅정년발 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영웅 청년선진들을 창조하며 자력자강이 제일이라는 혁명의 전리를 다시금 실현으로 확충하였다.

마침내 핵무선대에서 훌륭히 일 떠낸 핵무선영웅정년발전소 준 공이 성취되니 청년들력대원들은 원수님께서는 긍지높이 선인 하시었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 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인 여기 천자언계조전투장에서 창조된 선공내들의 청년들력대정신은 덩의 호소를 심장에 쏘아박고 단사를 세지고 일떠나가는 운바로의 정신이며 자력자강의 촉약과 같이 일찍이 싣도 허풍고 강을기머 막 는 드세한 공적정신이며 행한 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통지적우 애와 집단의 위력으로 곤륜을 뚫 고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변한 실천투쟁속 에서 당과 수형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자강력을 체질한 민승적인 청년전진들이 커히 력사였다. 인 민앞에 맺었던 내내주시었다.

새해의 행군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핵무선대에서 가르쳐주신 고귀한 혁명의 철리 가 메워진다.

자력자강이 제일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자력자강이 제일이다

남조선당국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호소에 역행하는 무모한 동족대결책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성명

민족분열의 비극을 한시바에 끝내려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에는 온 겨레의 염원과 지향은 남이 깊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결세의 위인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높은 연단에서 조국통일로선과 방위를 제시하신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또다시 조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인 입장과 방향을 밝혀주시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수치스러운 민족분열에서 종지부를 찍고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주시려는 절세위인의 단호한 의지와 결단, 애국애족의 뜨거운 열정에 감응하여 민족적 지지를 바탕으로 화해와 단결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남조선당국만이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전면 도전하여 무모한 대결책동을 부러내고 있다.

불신과 적대, 반목과 질서에 찌여있는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분열을 종결하고 민족적 지지를 바탕으로 화해와 단결을 이루고 있다.

이제 《2017년 업무계획보고서》라는 모의권을 펴놓고 《북핵문제 해결의 도전자》이며 《세계》와 압박을 통한 《민족분열을 안보대세구축》을 내세우는 것으로 온 겨레 북남관계를 동족대결로 지속하겠다는 흉심을 꾀어놓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초보적인 판별력이 있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자기들

에게 차려진 비참한 운명에 대해 명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기가 변하고 년도도 바뀌었지만 제도전복이 되었는데, 《세계변화》가 되었다가, 동족이 압살되었는가.

남조선당국의 무지무도한 이 모든 망동은 우리의 애국적인 선의와 애국적 열정을 무시하고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자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놓여있다.

이 행성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발전의 진로를 모색해나가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만이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자고만 전횡하는 위기국면에 위태로운 불길조짐을 보내고있는것은 함오 분란할 일이 아닐수 없다.

더이상 미분수 없는것이 북남관계이며 추후도 망일할수 없는것이 전쟁상황에 놓인 오늘의 조선반도정세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일일 천주로 학습고대하는 겨레의 열망은 하늘같이 높이있는데 함오도 안되는 억지책동에 의해 우리 민족이 유혈과 폭력의 도가니속에 말려들어간다는것은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남조선당국이 세력부두를 동족대결과 전쟁장기에 더욱 기세를 부려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다.

1. 남조선당국은 지금까지 집요하게 추구하여 온 동족대결정책의 결과를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심중히 돌아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리는것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할것이다.

과거는 오늘날과 폐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초보적인 판별력이 있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자기들

에게 차려진 비참한 운명에 대해 명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기가 변하고 년도도 바뀌었지만 제도전복이 되었는데, 《세계변화》가 되었다가, 동족이 압살되었는가.

남조선당국의 무지무도한 이 모든 망동은 우리의 애국적인 선의와 애국적 열정을 무시하고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자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놓여있다.

이 행성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발전의 진로를 모색해나가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만이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자고만 전횡하는 위기국면에 위태로운 불길조짐을 보내고있는것은 함오 분란할 일이 아닐수 없다.

더이상 미분수 없는것이 북남관계이며 추후도 망일할수 없는것이 전쟁상황에 놓인 오늘의 조선반도정세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일일 천주로 학습고대하는 겨레의 열망은 하늘같이 높이있는데 함오도 안되는 억지책동에 의해 우리 민족이 유혈과 폭력의 도가니속에 말려들어간다는것은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남조선당국이 세력부두를 동족대결과 전쟁장기에 더욱 기세를 부려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다.

1. 남조선당국은 지금까지 집요하게 추구하여 온 동족대결정책의 결과를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심중히 돌아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리는것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할것이다.

과거는 오늘날과 폐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초보적인 판별력이 있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자기들

에게 차려진 비참한 운명에 대해 명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기가 변하고 년도도 바뀌었지만 제도전복이 되었는데, 《세계변화》가 되었다가, 동족이 압살되었는가.

남조선당국의 무지무도한 이 모든 망동은 우리의 애국적인 선의와 애국적 열정을 무시하고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자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놓여있다.

이 행성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발전의 진로를 모색해나가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만이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자고만 전횡하는 위기국면에 위태로운 불길조짐을 보내고있는것은 함오 분란할 일이 아닐수 없다.

더이상 미분수 없는것이 북남관계이며 추후도 망일할수 없는것이 전쟁상황에 놓인 오늘의 조선반도정세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일일 천주로 학습고대하는 겨레의 열망은 하늘같이 높이있는데 함오도 안되는 억지책동에 의해 우리 민족이 유혈과 폭력의 도가니속에 말려들어간다는것은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남조선당국이 세력부두를 동족대결과 전쟁장기에 더욱 기세를 부려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다.

1. 남조선당국은 지금까지 집요하게 추구하여 온 동족대결정책의 결과를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심중히 돌아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리는것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할것이다.

과거는 오늘날과 폐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초보적인 판별력이 있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자기들

에게 차려진 비참한 운명에 대해 명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기가 변하고 년도도 바뀌었지만 제도전복이 되었는데, 《세계변화》가 되었다가, 동족이 압살되었는가.

남조선당국의 무지무도한 이 모든 망동은 우리의 애국적인 선의와 애국적 열정을 무시하고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자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놓여있다.

이 행성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발전의 진로를 모색해나가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만이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자고만 전횡하는 위기국면에 위태로운 불길조짐을 보내고있는것은 함오 분란할 일이 아닐수 없다.

더이상 미분수 없는것이 북남관계이며 추후도 망일할수 없는것이 전쟁상황에 놓인 오늘의 조선반도정세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일일 천주로 학습고대하는 겨레의 열망은 하늘같이 높이있는데 함오도 안되는 억지책동에 의해 우리 민족이 유혈과 폭력의 도가니속에 말려들어간다는것은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남조선당국이 세력부두를 동족대결과 전쟁장기에 더욱 기세를 부려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다.

1. 남조선당국은 지금까지 집요하게 추구하여 온 동족대결정책의 결과를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심중히 돌아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리는것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할것이다.

과거는 오늘날과 폐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초보적인 판별력이 있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자기들

총련 일군들의 반향

주제106(2017)년 새해를 조국방에서 맞이한 총련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들인것에 감격과 환희에 넘쳐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올해의 총련중앙일군들의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담보하는 위대한 실재도를 펼쳐주시었다.

수소탄의 잠재된 폭음으로 무려 조국의 북반방에서 일어났던 민족적 기적적승리에 이르기까지 반만년민족사의 특기할 만한 사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에 안아온 고귀한 결실체이다.

올해에도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위대한 실재도를 따라 사회주의 강구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박근혜 기묘오사카조선총공화국 교린은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넘쳐 새해 진군길에 떨치신 조국인민들의 투쟁기세는 총련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조국방 이르는 곳마다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루며 새로운 위용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며칠이 당당하고 활기에 넘쳤다.

그들의 열광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새해의 승리를 기원하며 다그쳐나가는 드높은 열의가 어려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새해의 승리를 기원하며 다그쳐나가는 드높은 열의가 어려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새해의 승리를 기원하며 다그쳐나가는 드높은 열의가 어려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새해의 승리를 기원하며 다그쳐나가는 드높은 열의가 어려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새해의 승리를 기원하며 다그쳐나가는 드높은 열의가 어려웠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청년들 참사진상규명투쟁에 나선것을 선언

남조선인민대중신문 《자주신보》에 의하면 청년단 추진위원회가 9일 서울의 평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 1 000일, 416인 청년투쟁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단평 조 통 거 리

얼마전 《세누리당》에서 벌어져온 《개혁보수당》 결성이 공식당명 《바른정당》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당장준비위원회라는 자는 《바른》이라는 단어에는 《올바른》, 《공정하다》, 《정의롭다》 등의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평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순식간에 《바른정당》을 야유, 조소하는 별명 명종훈 이름들이 다 울었다. 《명종훈의 정당》, 《바보당》, 《침바른정당》...

보수계력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심산에 부러부러 당명확정놀음을 벌였지만 뚝어부스럼이라고 그것은 오히려 여론에서 쉽게 감지당하는 꼴이 되고말았다.

사실 《세누리당》간판을 가지고서로는 세정권 야당을 실현할수 없다는 불만감에 사로잡힌 보수계력자들이 궁극적 조국대세를 바로 《개혁보수당》이다. 하지만 남조선 경계는 《개혁보수

《세월》호 경혼들의 피라는 절규

지난 7일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막대한 《경건》 회전을 위한 1차 범국민행동이 전개되었다. 64만 5 000여명이 참가한 이날의 투쟁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것으로 하여 《바른》은 내러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골에서는 60만여명이 초복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을 앞두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골에서는 60만여명이 초복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을 앞두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구호를 외쳤다.

《세월》호 경혼들의 피라는 절규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세월》호 경혼들의 피라는 절규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세월》호 경혼들의 피라는 절규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려객봉사활동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된 비결

신의주시려객자동차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원들이 려객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이러한 전환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사정신을 안고 혁신적인 경영전략으로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사업소일군들의 헌신적인 일본새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혁신적인 경영전략으로 수행하는데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대인은 초급당일군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작민을 세워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 먼저 배스수리장비를 위한 차량비장과 수리기구부 두부과를 하였다. 차량비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는 아름답고 당대하였다. 하지만 지대인은 자재를 비롯하여 결민 문제를 솔선 풀어나가면서 환경안 심현역을 발휘하였다. 일군들이 일제 못내며 일이었다.

사업소에서는 1 200㎡의 차량비장개선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으며 수리기구부 두부과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설비를 두 그릇이 갖추어놓았다.

이렇게 차량비장과 수리기구를 비롯한 수리기구부 두부과를 생산보장하는 배스수리장비를 선형시켜 이미 있던 배스들을 퇴실시키고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려객봉사활동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된 비결

신의주시려객자동차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원들이 려객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이러한 전환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사정신을 안고 혁신적인 경영전략으로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사업소일군들의 헌신적인 일본새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혁신적인 경영전략으로 수행하는데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대인은 초급당일군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작민을 세워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 먼저 배스수리장비를 위한 차량비장과 수리기구부 두부과를 하였다. 차량비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는 아름답고 당대하였다. 하지만 지대인은 자재를 비롯하여 결민 문제를 솔선 풀어나가면서 환경안 심현역을 발휘하였다. 일군들이 일제 못내며 일이었다.

사업소에서는 1 200㎡의 차량비장개선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으며 수리기구부 두부과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설비를 두 그릇이 갖추어놓았다.

이렇게 차량비장과 수리기구를 비롯한 수리기구부 두부과를 생산보장하는 배스수리장비를 선형시켜 이미 있던 배스들을 퇴실시키고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 1 000일이 되었지만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서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



박근혜 《경건》 회전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